

## 사이버상담 사례에 나타난 재혼가족 여자청소년의 어려움

지 승 희      오 혜 영\*      이 현 숙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재혼가족의 청소년기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선호하며 생생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특징이 있는 사이버상담의 게시판상담 사례 중 총 18개의 여자청소년 사례를 선정하여 합의에 의한 질적연구법(CQR)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7개 영역, 26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7개 영역은 주호소문제, 문제의 배경이 되는 재혼과정에 대한 지각, 계부모에 대한 지각, 친부모에 대한 지각, 심리적 갈등 경험,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반응, 그리고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이다. 영역별로 범주들의 내용과 의미를 기술하고 결과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재혼가족청소년, 질적연구, CQR, 사이버상담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혜영,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흥진빌딩 8층  
학업중단대응팀, Tel : 02-2250-3170, E-mail :ojuk@kyci.or.kr

이혼과 재혼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실제로 통계청 현황에 의하면 1998년 657,133건이었던 결혼은 2009년 506,422건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이혼은 116,294건에서 123,999건으로 증가하였고, 재혼 역시 1998년 89,789건에서 2005년 126,249건, 2009년 112,595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김유나, 2010). 이혼과 재혼은 단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2009년 현재 전체의 55.2%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였고, 재혼녀와 재혼남의 혼인이 전체 혼인의 12.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통계청, <http://kosis.kr/>)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재혼가정이 한 가정으로 적응되어 가는 과정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혼가족은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 다 재혼 이상의 결혼으로 자녀가 있거나 없으면서 하나의 가구를 유지하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류현수, 이정숙, 김주아, 2007, pp 351)으로 정의되며 재구성가족, 혼합가족, 두 개의 핵가족, 계부모가족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재혼을 통해 다시 얻은 배우자를 계모, 의붓어미, 계부, 의붓아버라 하고 그들이 데리고 온 자녀를 계자녀, 의붓딸, 의붓아들이라고 한다(김효순, 2005). 이렇게 기존의 두 가족이 합쳐지거나 부모 중 한 쪽이 새롭게 가족 체계에 편입되어 형성되는 재혼가족은 초혼 핵가족과는 달리 구조적, 기능적으로 복잡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적응과정이 예상되는 것이다. 실제로 재혼가족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김효신(2004)의 연구에 의하면 재혼여성들은 계자녀가 새엄마를 거부하는 것, 친자녀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친자녀와 계자녀 간의 갈등 문제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계엄마의 경우는 특히 전처의 자녀가 사춘기로 가는 전환기에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춘희, 1997).

계부모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부모의 이혼/재혼

과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자녀입장에서는 더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재혼과 그 이후 생활에서 자녀들은 새 부모와의 갈등(임춘희, 2006), 우울증과 같은 내면화된 정서적 문제(Zill, Morrison, & Cioro., 1993), 약물이나 음주, 혼전성교 같은 외현적인 문제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ay, 1992; Hoffman & Johnson, 1998), 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상실감과 재결함으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제도로 인한 어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나, 2009; 윤주애, 2002). 재혼과 같은 가족의 변화에 아이들은 분노와 우울증으로 반응하며 상실감, 충성심 갈등, 통제력 부족을 경험한다((Visher & Visher, 1996). 또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외부인 사람들과 부모형제관계를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친부모가 새 배우자와 가까워져서 자기들에게 할애하는 시간, 관심, 보살핌이 줄어들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erstein & Kelly, 1980).

청소년기 자녀는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재혼가족의 구조적 특성이 맞물려 재혼가족을 수용하는 것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Sager, Brown, Engel과 Walker(1983)에 따르면 이혼과 같은 가정해체는 청소년 전기의 과업 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즉 아동으로서의 역할상실과 원래의 친부모 가정 상실이라는 이중의 종결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들은 큰 정체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재혼으로 부모에 대한 분노심이나 충성심 갈등, 청소년기의 성적 충동이 극단적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등, 청소년기 자녀와 새부모의 관계는 재혼가족의 문제를 증가시키고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서 갈등의 소지가 많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Bay, 1999).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와 조부모 및 친척들과 밀착된 가족문화, 재혼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 등으로 재혼가족 구성원

들은 여러 가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김유나, 2009; 손병덕, 2005; 윤주애, 2002; 임춘희, 2006). 손병덕(2005)의 연구에서 재혼가족의 초등 학교 아동들은 재혼에 관한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재혼은 대개 성인간의 문제로 간주되어 자녀들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는데(손병덕, 2004; 윤주애, 2002), 실제로 재혼 전에 자녀와 재혼에 대해 의사소통하였는지 여부는 재혼가족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나 계형제들 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신, 2004; 윤주애, 2002; 손병덕, 2005). 즉 재혼 전에 자녀의 동의를 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가족에서는 계형제들간의 관계 갈등이 심각하지 않고 의붓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경우도 있었으며(김효신, 2004), 아동이 보이는 심리행동적인 문제는 '재혼 전 부모와 대화' 여부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병덕, 2004). 재혼가족 자녀의 스트레스 연구에 의하면(윤주애, 2002), 부모의 재혼에 자녀들이 반대했을 때, 자녀의 의사가 부모의 재혼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재혼 전이나 이후 새로 구성된 가족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자녀가 재혼가족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자녀들이 갖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을 세밀하게 이해하고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혈연중심의 개방적이지 않은 가족문화, 수직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문화의 특성상 새부모와 계형제\*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김영신(2008)은 자녀들이 새부모와의 관계에서 혼용방식에 대한 불편감, 새형제와의 차별대우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주애(2002)에 따르면 계부모를 부모범주에 넣지 않는 계자녀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계부모를 부모범주에

넣지 않는 계자녀들은 스트레스도 높았고, 대처양상도 소리를 질러 기분을 풀거나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는 등의 정서중심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관계에서는 계형제자매는 있는 경우 없는 것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았던 반면, 이복·이부형제자매는 있는 것이 없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가 낮았다(유주애, 2002). 김효순(2005)은 이와 관련하여 재혼가족의 계자녀는 새로 형성된 가족의 관계구조화에 있어 주된 긴장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부모-계자녀 관계의 적응이 재혼가족 적응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계부모나 계형제 관계도 긴장을 유발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함께 살거나 함께 살지 않는 친부모와의 관계 변화도 큰 문제이다. 부모의 재혼 후 자녀가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권위적인 부모행동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손병덕, 2005). 이에 대하여 Fine과 Kurdek(1992)은 재혼가족에서 친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반면 권위주의적인 부모행동은 재혼가족 청소년의 적응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Russell과 Searcy(1997)는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친부모가 새부모보다 더 자신들을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Russell & Searcy, 1997). 그러나 친부모가 재혼 후 무관심하다고 느끼거나(김영신, 2008; 손병덕, 2005), 아플 때에도 돌보지 않는다고 지각하거나, 심지어 41.5%에 이르는 아동이 최근 2달 이내에 심한 매를 맞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손병덕, 2005). 자녀들은 함께 사는 친부모와도 대화할 시간이 없고, 대화내용도 빈약하다고 지각하였다(김영신, 2008).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에서 계부모-계자녀 관계, 계형제와의 관계, 친부모와의 관계 등 갑작스럽게

\* 계형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붓형제는 틀린 표현으로 의부는 '의로 맺은 아버지'를 뜻하나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자식 등을 붙여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의붓자식, 의붓아들'의 표현은 맞지만 형제관계를 이르는 말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재혼한 부모자식관계를 이르는 말로는 계형제가 맞는 표현이다 장석영(2011) 『우리말 바로쓰기 반딧불 반딧불이』 중에서

확장되거나 변화되는 복잡한 관계에의 적응, 그리고 이에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등이 재혼가족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혼가족 청소년의 특징이나 구체적인 어려움의 양상, 그리고 대처방식 등 상담적 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알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수정(2009)의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진 재혼 연구 동향 분석에 의하면, 전체 101편 중 재혼가족 17편, 재혼관 및 인식에 대한 연구 13편, 노인 재혼 45편, 재혼관련 문헌 연구 19편, 재혼 관련 프로그램 5편, 사례 연구 2편으로 노인 재혼이 가장 많고, 문헌연구, 재혼가족 연구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이 중 재혼 가족에 대한 연구는 재혼모의 스트레스를 다룬 논문 4편, 재혼생활 실태 5편이고 재혼가족 자녀에 대한 연구는 4편에 불과했다. 이후 재혼가족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김유나, 2010), 의사소통의 영향에 관한 재혼가족 청소년 연구(김영신, 2008) 등 재혼가족 자녀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양적연구이거나 대상이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어서 청소년기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 면밀하게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김호신(2007)의 연구만이 재혼가족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한 것이었지만 적응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들의 겪는 내적인 경험들이나 어려움에 대한 현상들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겪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재혼가족이라는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현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혼가족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 사례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사이버상담은 나를 알리지 않고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고(임은미, 김지은, 1999), 우회하지 않고 바로 자기개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며 글쓰기를 통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오혜영, 지승희, 허지은,

2010). 대면상담에서는 밝히기 어려운 내담자들의 사적 경험이나 약점들을 사이버공간에서는 허심탄회하게 드러낼 수 있고(이기춘, 1991), 대면상담보다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반응하며(임은미, 1999), 자기개방 면에서 유용한 방법이다(이선명, 2001; Sproull & Kiesler, 1986). 사이버상담 중 게시판상담은 내담자들이 현재 겪는 어려움과 내적인 생각과 느낌을 글로 남겨놓으면 일정 시간 내에 상담자가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해 응답해주는 상담형태이다. 대개 내담자가 힘든 그 순간에 바로 글을 올리게 되므로 내담자의 문제와 특성, 감정, 대처 등이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게시판상담 사례를 분석한다면 재혼가족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상황 당시의 내적인 경험, 즉 문제의 내용, 감정, 해석, 대처 등 면접을 통해 얻기 어려운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방질문을 구성하여 대상자를 면접하는 대신 게시판상담 사례를 분석하였다.

## 방 법

###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Hill 외(1997, 2005, Hill, 2012)가 개발한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의 분석절차를 사용하였다. CQR은 개인의 내적 경험, 이전에 연구되지 않았거나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 등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Hill et al., 2005), 그동안 심리치료, 상담자 훈련 및 슈퍼비전, 건강 관련 주제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에 적용되어 왔다(Hill, 2012). 1997년 제안될 당시의 전통적인 CQR은 연구주체에 적절한 개방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최소한 3명의 분석팀이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과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거치는 철저

한 분석절차를 통해 현상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Hill et al., 1997, 2005; Hill, 2012). 이후 Hill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 일지나 상담회기 등 이미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절차, 다양한 분석팀 구성 등 연구 목적에 따라 융통성 있게 CQR을 적용하며 발전시켜 오고 있다(Hill, 2012).

### 연구대상

자신의 문제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게시판상담의 내용을 분석하면 재혼가족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이후 상담적 개입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이버상담의 게시판 상담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 청소년상담기관에 접수된 게시판 상담사례 중 재혼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100여편이 넘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그 중에서 재혼가정 문제이지만 단순한 질문이나 정보제공과 관련된 것, 내용이 빈약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제외하고,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2사례(남자 3, 여자 19) 선택하였다. 모든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례가 여자 중고생 연령의 사례인 점을 고려하여 남학생 사례와 초등학생 사례를 제외하고 여자 청소년 18사례만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결정하였다.

### 분석팀

분석팀은 연구자 3명으로 이루어진 합의팀과 외부 감수자 1인으로 구성되었다. 합의팀은 상담심리 전문가이며 상담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2명과 상담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1명이고, 감수자는 상담심리 전문가이며 상담관련 박사과정 수료자이다. 합의팀 3명 중 2명과 감수자는 4차례의 CQR 연구에 참여

한 경험이 있고, 4명 모두 청소년상담 현장에 5년 이상 종사하며 사이버상담과 사이버상담에 대한 수퍼비전을 수차례 진행한 경력이 있어 사이버상담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 분석절차

#### 영역 코딩

수집된 자료는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기록한 게시판상담 사례이다. 자료의 성격상 분석하기 좋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료에서 영역 목록을 도출하기 위해 각자 또는 함께 상담사례를 반복하여 읽고 토의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야 했다. 또한 연구자의 추측이나 짐작,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였다. 우선 3개의 사례를 함께 읽고 합의하여 영역을 도출한 후 나머지는 각자 사례를 읽고 영역을 구성한 다음 다시 모여 토의를 거쳐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7개 영역(주호소문제, 재혼과정에 대한 지각, 계부모에 대한 지각, 친부모에 대한 지각, 심리적 갈등경험,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반응, 문제에 대한 대처)이 도출되었고, 각 사례들을 이 영역 목록에 따라 편집하는 코딩작업을 하였다.

#### 핵심개념 구성

각 사례들을 영역별로 편집한 다음 의미단위를 요약하는 핵심개념 구성 작업을 하였다. Hill 외(2005)의 제안대로 각 영역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사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의미를 유지하여 요약하였다. 영역 코딩 과정과 동일하게 처음 3개의 사례는 함께 작업하고, 나머지 사례는 나누어서 핵심개념을 구성한 후 다시 함께 모여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자료로 돌아가 내담자의 표현을 재요약하고 토의를 거쳐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교차분석**

모든 사례의 영역 및 핵심개념이 확정된 후 사례들 간의 유사성이나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각 영역의 핵심개념들을 모아 범주화하였다. 여러 유사한 핵심개념들의 내용을 포괄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범주명을 결정하고 빈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사례 또는 한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가 포함되는 경우, 즉 17-18사례의 경우를 [일반적], 반 이상에 적용되는 경우, 즉 9-16사례를 포함하는 경우를 [전형적], 적어도 2사례 이상부터 반 미만 까지, 즉 4-8사례는 [드문]으로 그리고 2-3사례는 [매우 드문]으로 표시하였다(Hill et al., 2005).

**감수**

모든 사례의 영역과 핵심개념을 구성하고 교차분석을 거친 합의판에 대해 외부 감수자 1인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영역 목록, 핵심개념 구성, 교차분석의 범주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주었

며,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자 청소년 18명의 게시관상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재혼가족 구성에 대해서, 즉 재혼시기, 재혼사유, 거주형태, 재혼유형, 계부모에 대한 호칭, 형제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모의 재혼시기는 대상자들이 미취학 연령일 때 2명, 초등학생일 때 13명, 중학생일 때가 3명으로, 대부분이 초등학생 시기에 부모의 재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재혼사유는 사별이 1명, 이혼이 17명으로 이혼으로 인한 재혼이 대부분이었다. 재혼가족 청소년의 거주형태는 재혼한 계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14명, 계부모와 살지 않고 조부모와

표 1. 연구대상의 재혼가족 구성 형태

	내 용	빈 도
재혼시기	미취학	2
	초등학생	13
	중학생	3
재혼사유	사별	1
	이혼	17
거주형태	계부모와 거주	14
	계모	9
	계부	5
	조부모와 거주	4
재혼유형	재혼	16
	반복 재혼	2
계부모에 대한 호칭	새엄마, 새아빠	12
	아줌마, 아저씨, 그 여자	6
형제관계	이복, 이부형제	10
	계형제	6
	친형제	4
	형제없음	1

표 2. 게시판상담에 나타난 재혼 가정 여자 청소년의 어려움

영역	범주	빈도
주호소문제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	전형적(16)
	주거의 불안정	전형적(13)
	재혼가족체계의 구조적 어려움	전형적(11)
	기본적 돌봄의 부재 또는 부족	전형적(11)
	학업 및 경제적 지원 부재 또는 부족	드문(6)
재혼과정에 대한 지각	부모의 의사결정	전형적(13)
	사전 이야기를 함	매우 드문(2)
계부모에 대한 지각	친자식처럼 대해주지 않음	전형적(12)
	계부모의 문제가 있음	드문(7)
	사건을 계기로 관계 악화	드문(5)
친부모에 대한 지각	친부모에게 기대기 힘들, 상처받음	전형적(11)
	친부모의 문제 있음	전형적(9)
	친부모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드문(6)
	친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끄러움	드문(6)
심리적 갈등경험	내몰린 느낌	전형적(13)
	생활근간이 흔들리는 느낌	전형적(11)
	가족 내 지위 역할 혼란	전형적(10)
	충성심 갈등	드문(6)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반응	우울함, 죽고 싶음	드문(8)
	외로움, 털어놓을 사람 없음	드문(7)
	자기연민	드문(5)
	신체적 증상	드문(4)
현재문제에 대한 대처	참고 견딤	전형적(9)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드문(4)
	학업포기 및 비행	매우 드문(3)
	자살시도	매우 드문(2)

※ 17-18사례 [일반적], 9-16사례 [전형적], 4-8사례 [드문], 2-3사례 [매우 드문]

사는 경우 4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혼 후 한 번 재혼한 경우였지만(16명) 재혼이 반복되는 경우도 2명 있었다. 재혼한 계부모에 대한 호칭도 다양하였다. 새엄마, 새아빠 12명, 아줌마나 아저씨, 그 여자 등 6명으로 관계가 힘들다고 호소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계부모를 엄마, 아빠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제관계의 경우, 이복/이부형제가 있는 경우 10명, 계형제가 있는 경우 6명, 친형제가 있는 경우

는 4명이며, 형제가 아무도 없는 경우는 단 1명뿐이었다. 부모의 재혼으로 형제수가 많아지고, 형제서열이 바뀌거나 반쪽 혈연의 동생이 생기는 등 형제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분석 결과 도출된 총 7개 영역과 26개 범주들을 영역별로 기술하고 사례를 예시하였다. 각 영역별 범주들과 빈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 주호소문제

재혼가족 여자청소년들이 게시판상단에 보고한 ‘주호소문제’는 가족구성원 간의 불화(전형적), 주거의 불안정(전형적), 재혼가족체계의 구조적 어려움(전형적), 기본적 돌봄의 부재 또는 부족(전형적), 학업 및 경제적 지원 부재 또는 부족(드문) 등 총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가족구성원 간의 불화’의 범주에서는 부모님간의 불화, 부모님과 청소년 내담자 간의 갈등, 형제자매간의 갈등,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다. 재혼가족 여자 청소년들은 재혼 이후 새로운 가족구성원 안에서 친부모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인식하거나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간섭을 할 때, 재혼 이후 계부모와 친부모가 자꾸 불화할 때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입장에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부분이 어렵기도 하지만 재혼 후 부모들도 달라진 가족구성원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껴 제대로 관계형성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3) 엄마와 여동생(계여동생) 앞에서는 팔팔출 아빠 이면서 저와 남동생(친동생) 앞에서는 화부터 내고 신경질적인 아빠...라고 해야 할까요... 중략... 더 이상 듣기가 싫어서 '나랑 남동생한테 신경 좀 더 써달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와서 계속 말하면 울음이 터질까봐...아빠는 엄마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같이 깔깔대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사례 5) 그 아저씨도 저한테 말 안거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가 나랑 아무 관계도 아니면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진짜 그런거 너무 싫어요. 진짜 같이 밥먹을 때도 치가 떨려요.

두 번째 ‘주거의 불안정’의 범주에서는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거지가

부모 양쪽을 오고가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면서 오는 갈등 경험, 현재 재혼한 부모님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디론가 보내질지 모른다는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받으며 이에 따른 불안감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9) 전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살다 아빠랑 살다 이리저리 많이 가 있어서 전학도 많이 가보고 피해본 게 많아요. 지금은 외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사례 20) 4살 때 부모님 이혼 후 엄마와 아빠 사이를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은 엄마와 살고 있어요

(사례 12) 방학 때 전학하는 게 어땠겠냐고 상처 받기 전에 끝내는 게 어땠겠냐고... 그래서 저랑 여동생은 여기에 남고 싶다고 했어요. 알았다면서 각서를 쓰래요...

세 번째 ‘재혼가족체계의 구조적 어려움’의 범주에서는 재혼이라는 가족체계로 인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문제 즉, 호칭의 문제, 호적 이전의 문제, 재혼가족이라는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복/이부 형제의 출산, 계형제자매와 성이 다른 문제로 인한 괴로움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모들의 노력과 가족의 이해로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2)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아빠가 호적을 옮기려면 엄마랑 서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엄마가 안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심정으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차라리 아빠한테 가서 살고 싶어요.

(사례 12) 어떻게 하다보니 여동생만 성이 다른데요... 친구들이랑 바깥 사람한테는 이름 바뀌어서 우리가 원래 가족 이었던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허점이 드러나는 것 같고 힘들어요...

네 번째 ‘기본적 돌봄의 부재 또는 부족’의 범주에서는 아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부재



하여 내담자가 가족 안에서 이해받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등 일차적 돌봄이 부족한 경우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미성년자로서 가족의 울타리에서 돌봄이 필요하지만, 재혼가족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녀들에게 혼란감, 통제불능감과 같은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하여 계부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거나 폭력적 환경에서 방치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례 2) 새아빠가 저 엉덩이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아랫배도 스윽 만지고 그럴 때마다 치가 떨리고 미쳤나... 잠들쯤 하나까 또 엉덩이 쪽 만지고... 그 뒤부터는 정말 치가 떨리고 소름돋고 미쳤나 변태가 이 생각 뿐이에요.

(사례 19) 할아버지의 구타와 욕설이 난무하고 아빠와 새엄마가 싸우는 소리 남동생이 우는 소리가 새벽에 들립니다...이 상황만 벗어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학업 및 경제적 지원 부재 또는 부족’ 범주에는 재혼 후 계부모의 차별이나 친부모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지원 및 학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자녀들은 눈치를 보거나 좌절하거나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지만 부모에게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8) “야 너 내 눈 앞에 띄지 마. 니 혼자 자급자족 하고. 돈 같은 거 달라고도 하지 말고”(새 아빠가) 라고 하더군요.

(사례 16) 진짜 제가 공부 안하고 그래도 정말 힘들거든요... 공부하는데 니가 힘들게 뭐가 있냐 그런 식이예요... 진짜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데...

### 재혼과정에 대한 지각

부모의 재혼과정에 대해서는 부모의 의사결정(전형적), 사전에 이야기를 함(드문)으로 총 2개의 범

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부모의 의사결정’의 범주에는 부모의 재혼과정에 대해 ‘강제로’ 또는 ‘갑자기’ 알게 된 경우들이 포함된다. 많은 경우 부모의 재혼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모를 맞게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5) 초 6때 엄마는 재혼을 했구요. 재혼하시기 전에 대충 눈치채고 있었는데. 엄마는 재혼을 비밀로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엔 재혼한 사람과의 아기도 낳으셨어요.

(사례 13) 갑자기 아빠가 어느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아빠에게 직접 듣지 못하고 어른들한테 듣고 일주일 전에 들었거든요. 많이 혼란스러워서 죽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두 번째 ‘사전에 재혼에 대해 이야기를 함’은 많지는 않지만 재혼하기 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녀가 누구와 살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경우이다.

(사례 9) 엄마는 지금도 제가 허락해서 재혼을 한거고 내가 반대하면 안 살았을 것이다 너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 계부모에 대한 지각

계부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은 친자식처럼 대해주지 않음(전형적), 계부모의 문제가 있음(드문), 사건을 계기로 관계 악화(드문) 등 총 3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친자식처럼 대해주지 않음’ 범주에는 계부모가 계형제와 자신을 차별대우 한다고 느끼거나, 친부모가 함께 있지 않을 때 계부모가 폭력적이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사례 8) 새엄마는 의붓동생에게는 다 해주면서 내가 대학가는 것은 싫은 소리를 하고 직장 다니라고 다그쳤다. 의붓동생은 다 해주면서 내 힘든 거는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다.

(사례 14) 동생이랑 저랑 차별을 했죠. 그때부터 전 생각했어요. 지아들이라고 잘해주는구나. 난 지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차별하는구나

(사례 18) 예전에도 미웠지만 새아빠는 정말 엄마 있을 때만 저한테 잘해주는 척을 해요. 그리고 저랑 있을 때는 친자식도 아닌 년이 어딜 대드냐고. 내가 와이프만 아니었어도 너 같은 년은 반쯤 죽여 놔...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잘못 한 일 같으면 막 손찌검 하고...

두 번째 ‘계부모의 문제가 있음’ 범주에는 처음부터 계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계부모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각 등이 포함되었다.

(사례 11) 새엄마는 저에게 잘 해 준 기억이 없어요. 아빠랑 싸우거나 안 들어오시면 나한테 화냈죠. 날 무시하고 길에서도 나를 때렸어요.

(사례 14) 새아빠에게 온 문자를 봤는데 바람피고 있었다.

(사례 18) 새아빠가 때릴 때에도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방문 걸어잠그고 몽둥이 하나 집어 들고 가둬두고 뺨니다. 제 머리를 발로 차기 까지 해놓고 한겨울에 쫓아낸 적도 있어요.

세 번째 ‘사건을 계기로 관계 악화 됨’ 범주에는 처음에는 계부모와의 관계가 좋았으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관계가 나빠졌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례 1) 처음에는 새아빠도 저에게 잘해주셨고 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새아빠와 의견충돌로 한번 싸운 이후에는 아빠는 저에게 잘해주시지 않고 딸로도 대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례 12) 새엄마와 첫 1년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사건이 있는 후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엄격한 새엄마를 대하기가 좀 곱끄러웠나봐요... -중략- 하지만 문제는 엄마랑 예전보단 확실히 엄청 어색해졌어요...

### 친부모에 대한 지각

친부모에 대한 지각은 친부모에게 기대기 힘들고 상처받음(전형적), 친부모에게 문제 있음(전형적), 친부모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드문), 친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끄러움(드문) 등 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친부모에게 기대기 힘들고 상처받음’ 범주에는 재혼 후 믿고 의지하여야 할 친부모에게 기대기 힘들고, 친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으며 심지어 폭력과 폭언으로 상처를 준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계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보다 친부모와 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더욱 고통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1) 아줌마 앞에서 절 그렇게 혼낸 것도 수치스럽고... 진짜 너무 외롭고 아빠에게는 기댈수 없어요... 아빠에게서 혁대로 맞기도 하고 빗자루나 그냥 손으로 발로 마구잡이로 때려요...혼자인 게 너무 마음 아프고...엄마가 보고 싶어요.

(사례 17) 저를 버리고 간 아빠를 용서해주겠느냐고 말씀하셔서 정말 고개를 힘차게 흔들면서 울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 편이 생긴 것만 같았어요. 그런 아빠가 저한테 배신감을 안겨줘 버렸지요...

(사례 18) 새아빠가 학교 다닐 의향이 없었다면서 학교 때려치우고 집 나가라고 하니 엄마도 아저씨와의 사랑이 먼저라서 제 입장 생각도 안하고 제가 잘못했대요... 저를 그렇게 찬밥 취급하니까 어이없고 분해요. 제가 자식인가 싶고요.

두 번째 ‘친부모의 문제’ 범주에는 재혼 후에도 친부모가 가지고 있는 폭력, 술, 경제적 무능력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순조롭지 못하고 문제가 반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례 2) 참고 또 참았지만 진짜 계속 되는 엄마 욕설과 학대로 인해서 더 이상 참기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다.

(사례 20) 엄마는 우울증이 심한데... 엄마는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화나서 막 말하고...

(사례 22) 아빠는 매일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세 번째 ‘친부모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범주에는 함께 살지 않는 친부모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재혼 후 친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민 등이 포함되었다.

(사례 5) 친아빠는 주말마다 뵈요. 근데 아빠는 아직 엄마가 재혼하셨다는 걸 모르세요.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사례 11)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친엄마가 보고 싶어요.

네 번째 ‘친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끄러움’ 범주에는 재혼을 한 부모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과 부모님의 임신, 재혼을 부끄럽게 여기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사례 9) 정말 날 딸로 생각하는 건지 짐이 되는 건지...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하필 내가 왜엄마 딸일까 싶을 때도 많구요...

(사례 15)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결혼도 안했는데 임신 했다는게 더럽다는 생각도 해서 제 자신도 싫고...

### 심리적 갈등경험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인 갈등은 내몰린 느낌(전형적), 생활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전형적), 가족 내 지위 역할 혼란(전형적), 충성심 갈등(드문)으로 총 4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내몰린 느낌’ 범주에는 재혼부모들이 자녀를 가정의 문제로 간주하고 이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느끼는 감정이 포함되었다. 계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한 경우 청소년에게 화풀이하고, 양육과 경제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계자녀를 몰아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부모들의 말과 행동은 재혼가족 청소년들로 하여금 모든 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언제 내몰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았다.

(사례 2) 엄마가 새아빠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난 재가한 번도 내 새끼라고 생각이 안돼... 어쩔 쟀 애가 저 따위로 생겼을까... 아후 저걸 어마 씨 먹어 진짜... 자기도 이런 내 말 깊이 새겨서 잘 생각해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ㅋㅋㅋ 지금 생각해도 웃음 밖에 안나오는 저 말...

(사례 6) 저는 그냥 이 집안에서 방해만 되는 존재 같습니다. 엄마도 저에게 지쳤는지 고개를 돌리고...새아빠는 아예 타인 취급을 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 집안에서 살기 싫어요.

(사례 9) 새아빠가 손가락질 하면서 나가라고 한 게 정말 잊혀질래야 잊혀지지 않는 일이에요.

두 번째 ‘생활근간이 흔들리는 느낌’ 범주에는 부모의 재혼으로 그동안 유대감이 있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자매 관계, 외가나 친가의 관계, 친구 등과의 유대감이 약화되거나 단절되는 느낌, 즉 자신의 사회적 기반이자 뿌리가 외부에 의해 송두리째 파괴되거나 위태롭게 여겨지는 느낌이 포함되었다.

(사례 3) 아빠의 재혼으로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와 관계가 저절로 단절이 되어 버렸다... 외할머니는 전화해서 저한테 화를 버럭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울기 시작하니깐 덩달아 우시더니 인연을 끊자고 그러시더군요... 덕분에 외삼촌, 이모부, 등 친척들이랑 저절로 연락두절이 되어 버렸고...

(사례 17)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 저의 사정, 저의 고민을 털어 놓던 친구들과도 자연히 떨어지게 되어 더 힘들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족 내 지위 역할 혼란’ 범주는 가족 경계의 혼란 또는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모호함, 혼란스러움 경험 등이다. 어디까지가 나의 가족인지 경계가 모호하나 이에 대해 부모의 특별한 언급 없이 자녀가 알아서 상황을 수용하기를 기대하는 경우, 재혼가족에 와서 이부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회의를 갖는 경우, 계동생과의 관계에서 역할이 불분명하고 침입당하는 느낌을 갖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사례 2) 동생들(이부동생들) 뭐 하나 잘못되면 그니까  
엄마가 야기 좀 보라고 그랬지! 정말로... 난 뭐 파출  
부인 것처럼...중략...누나로서 그거 안해주려면 뭐하러  
왔니? 니가 여기와서 뭐 한게 있니 이래요. 마치 내가  
뭐 받아 먹기만 한 것처럼...

(사례 13) 동생이 생길 꺼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갑자기  
현실로 들이닥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빠에게  
배신감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빠라 해도 생일날 연락  
한번 안하고 넘어갔는데 태어날 동생은 엄마 아빠 사  
랑을 받고 같이 살테니 부러울 뿐이에요.

네 번째, 드물지만 ‘충성심 갈등’을 호소하였다.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친부모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  
이 계부모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과 양립될 수 없다  
고 느끼고 있었다.

(사례 20) 새엄마 몰래 저희 엄마랑 문자도 하고 전화통  
화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중략...다음날 학교 갔다와  
서 새엄마한테 꾸중듣고 해서 울고 그랬어요.

###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반응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우울함, 죽고 싶음(전형적), 외로움, 털어놓  
을 사람 없음(드문), 자기연민(드문), 신체적 증상  
(드문) 등 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우울함, 죽고 싶음’ 범주는 재혼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재혼 후에도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  
해서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포함되었다.

(사례 9) 눈뜨고 눈감을 때까지 생각하고 입에서 맴도는  
말은 그저 죽고 싶다 이 네 글자예요. 미치지 않으면  
정말 이러다 언젠간 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이렇게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할 고통보단 죽을 때 한번 고통  
이 더 낫단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사례 19)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상황만 벗어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제발 죽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외로움, 털어놓을 사람 없음’ 범주에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고 외롭고, 그 누  
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어  
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사례 1)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지내는 친한 친구조차  
말할 기회도 없고 저를 받아줄 상황도 안되거든요. 어  
떻게 해야 할까요 ^.^:... 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사례 16) 정말 힘들거든요... 따뜻한 포옹이라도... 눈물  
을 닦아줄 사람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저희 집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따뜻한 한마디 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세 번째 ‘자기연민’ 범주에는 부모의 재혼과정을  
겪으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포함되  
었다.

(사례 5) 친구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소외감을 느껴요. 이런 환경에  
사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네 번째 ‘신체적 증상’ 범주는 정서적 어려움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매우 드문 반응  
이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  
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반응으로 보  
여진다.

(사례 2) 항상 불안에 떨고 미친듯이 심장은 뛰고, 몸도  
떨리고, 걱정뿐이고, 나쁜 생각만 들고, 왼쪽 가슴 밑  
에도 아프고,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어올 때가 있고,  
소화도 안되고....

(사례 20) 밥도 안 먹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먹어서  
위염도 걸리고 빈혈도 생겼어요.

### 현재문제에 대한 대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참고 견딜(전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드문), 학업포기 및 비행(매우 드문), 자살시도(매우 드문) 등 4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참고 견담’ 범주에는 곁으로 드러나지 않고 혼자 참고 견디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변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또는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몰라서 참고 견디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7) 이제 더 이상 괜찮은 척 하는 것도 싫어요.

(사례 20) 맨날 다른 사람들 앞에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고 다니는게 너무 지겨워요. 왜 이려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원 가서 상담 받고 치료도 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례 6)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 집안에서 살기 싫어요. 가출이라던가 자살이라던가 그런 건 저한테만 손해니까 꼭꼭 참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참는 건 무리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제발...

두 번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범주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았던 경험들이 포함되었다. 드문 반응이기는 하지만 상담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7) 우울증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또래상담원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

(사례 18) 너무 시달려서 미술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세 번째 ‘학업포기 및 비행’ 범주에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학업을 포기하고 비행행동을 선택하는 등의 대처가 포함되었다.

(사례 2) 다른 걸로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다. 너무 힘들어서 담배도 피고 손목도 그었다.

(사례 14) 아는 오빠들에게 담배도 가르쳐 달라고 조르고 나쁜 짓을 다 하려고 했다.

네 번째 ‘자살시도’ 범주는 2사례에서만 나타난

‘매우 드문’ 반응이기는 하지만 재혼가족에서 겪는 어려움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특히 영역 6의 정서적 반응 중 우울과 자살충동을 호소하는 반응이 전형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자살시도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2) 저는 여기 친엄마한테 와서 살면서 손목을 3번 그었어요. 더 그을 거 정말 통제하고 자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고 또 참았지만...

(사례 20) 뻑 돌아서 칼도 들었다가 정신차리고 다시 놓구요...힘들어서 자살시도도 했어요.

## 논 의

본 연구는 사이버상담실을 방문한 재혼가정 청소년들의 게시판 상담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버상담실을 방문하여 재혼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18개의 여자청소년사례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주호소문제 영역’, ‘재혼과정에 대한 지각영역’, ‘계부모에 대한 지각 영역’, ‘친부모에 대한 지각’, ‘심리적 경험’,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반응’,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의 7개 영역과 26개 범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혼과정이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대부분 인식하였고 현재 힘든 문제로는 재혼가족 구성원과의 불화, 주거의 불안정, 재혼가족체계의 구조적 어려움, 기본적인 돌봄부재 등을 호소하였다. 계부모는 자신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친부모는 기대가 힘들다는 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혼가정 속에서 밖으로 내몰리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과거생활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혼란을 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반응이 전형적이었으며 참고 견디는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로 재혼가족 여자 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적응적으로 재혼가족구조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계부모 간의 많은 의사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되었듯이 재혼은 '부모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루어졌다. 계부모들은 사전에 통보 없이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혼 사실을 알려거나 이를 비밀에 붙이고 청소년들이 상황을 수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 달리 사별이나 이혼 같은 상실감을 주는 경험을 바탕으로 출발한 복합가족(임춘희, 2006)이므로 처음부터 구조적 어려움과 구성원 간의 낮은 결속력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효신(2004)에 의하면 재혼 전에 자녀의 동의를 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가족들이 계형제들이 화목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혼 전에 충분한 설명과 교류를 통해 자녀를 포함한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재혼 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들은 호적이전 문제, 공동자녀 출산문제, 호칭 문제, 친지와와의 관계설정 등 새로운 가족체계의 구조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친자녀나 계자녀, 계부모 모두의 가족 경계를 분명히 해 줄 수 있어 이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또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재혼가족 여자청소년의 생존위협감과 관련한 부모의 자각과 노력이다.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거의 다 '가족 구성원간의 불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주거의 불안정'과 '기본적 돌봄의 부재 또는 부족' 등을 전형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구성간의 불화는 소소한 일상사건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인 불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청소년들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욕설, 폭력, 성폭력과 같은 폭력적 환경에 무방비로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친부모나 계부모는 이를

방치하거나 무시하였다. 특히 부모, 계부의 성폭력이나 폭력에 대해 여자청소년들은 다른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 미성년인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도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혼가족 부모들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녀가 재혼가족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다른 부모나 조부모, 친지 등의 집으로 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하여 자녀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아직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통제감 결여와 낮은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혼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재혼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른들의 불화와 선택에서 재혼가정의 청소년들의 보호부분은 상당부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진다. 손병덕(2005) 역시 친부모와의 만남을 제한하는 것, 교육, 오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등에 있어서 재혼가족 아동들 대부분이 일반가정 아동들 보다 부적절한 처우를 경험하나 이러한 아동의 학대나 방임은 학교에서도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혼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 혼인신고 시 자녀 양육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 재혼가정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여러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혼가족 청소년에 있어서 계부모와 친부모는 심리적 지지자로서 유연성과 지지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혼가족의 부모들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에서 청소년 자녀가 다른 쪽 부모를 상실함으로써 느끼는 위협에 의해 야기된 스트레스를 다루어 주어야만 하는 부담이 있다(Steven, 1991). 실제로 계부모나 친부모는 이러한 부담을 양육의 스트레스로 느끼고 있었다.

김영신(2008)은 재혼에 대한 청소년자녀의 갖가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돕고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유연성과 지지적 태도는 오히려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게 하여 재혼가족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계부모와 친부모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계부모가 자신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지 않는다'거나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되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친부모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감정을 가졌는데 '상처를 받고 기대기 힘들다'는 반응이 전형적이었지만, '친부모에 대한 연민', '원망' 등이 나타났다. 김영신(2008)은 친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재혼가족 청소년자녀로 하여금 새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도록 하여 재혼가족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친부모가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자녀가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정, 상황을 탐색하도록 돕고 자녀의 경험이나 생각과 유사한 경험과 생각을 개방하여 공감해줄 때 청소년자녀는 새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애정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새부모를 보살피고 있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재혼한 친부모는 청소년 자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줌으로써 심리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지적인 양육태도로 재혼가족 청소년자녀의 적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혼가족의 친부모 역할,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계부모는 양육에 있어서 서서히 관심을 보이고 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Hetherington, 1993)와 같이 이에 대한 연구들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들이 재혼으로 인해 느끼는 정서적 박탈감을 다루어주어야 하며 재혼가족을 자신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안전한 심리적 기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집 밖으로 내몰린 느낌', '생활의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 '가족 내 지위역할 혼란', '충성심 갈등'

등을 경험하였고 '우울, 죽고 싶음', '외로움, 심리적 고통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음', '자기연민' 등의 정서를 느끼고 있었다. 재혼가족이 새로운 가족체제로 충분한 통합이 없다면 청소년기 자녀는 가정 밖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다. 이는 재혼가족 내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미묘한 분리에서 시작되어 결국 청소년 가출이나 자살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포기하는데 까지 이를 수 있다(임춘희, 2006). 또한 생활의 근간 뿌리가 끊기거나 대체됨으로써 아노미 상태가 되기 쉽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익숙했던 어린 시절의 생활방식과 핵가족의 상실, 그리고 부재부모에 대한 슬픔이 있다. 아이들은 핵가족의 와해와 새부모를 택하는 문제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 그 동안의 생활 기반이었던 장소를 떠나는 것, 외조모나 친조모 등과의 단절 등 재혼은 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은 생활의 뿌리가 흔들리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종종 자녀들에게 무기력과 분노, 죄책감, 반항심, 분열된 충성심, 불안정성, 정체감 혼란, 그리고 재혼가족에 대한 몰입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Sager et al, 1983). 또한 같이 동거하지 않는 친부모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욕설 등은 청소년 자녀에게 혼란감과 함께 분열된 충성심을 낳을 수 있었다. 새 가족관계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 재혼가족이나 부모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새부모와 잘 지낼 때에는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이 나타나는 등 양가적인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재혼으로 인해 느끼는 정서적 박탈감이나 혼란감을 충분히 토로하고 새로운 재혼가족을 안전한 심리적 기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심화된 가족구성원 대상의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계자녀, 계부모의 공동자녀(mutual child), 친형제 등 복합적 재혼가정에 대한 현장 연구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계자녀, 공동자녀, 친형제 등 복합가족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이 나타났다. 즉, 새로운 가정 내에서 새형

제가 들어오면서 형제순위가 바뀐다든지, 친부모의 애정과 시간을 계자녀와 공유한다든지, 반쪽만 피가 같은 새형제를 갖게 된다든지 하는 상황은 이들에게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재혼가족의 출산자녀나 계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요구 받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나 요구는 묵살당한다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또한 친부모와 주변인들은 새로 태어난 공동의 자녀로 인해 재혼가정이 굳건해지기를 바라지만 자기 위치가 불안정한 계자녀들은 이로 인해 심적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Ganong과 Coleman(1988)에 따르면 공동자녀 출산으로 재혼가정이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재혼가족이 확고한 관계를 통해 형성한 후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재혼부모들에게 공동자녀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생각해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단순재혼가족이 복합재혼가족보다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더 잘 적응한다는 Cherlin(1978)의 연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복합재혼가족은 다양한 인간관계와 역동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재혼부모들의 적절한 개입이 더욱 많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형제가 있는 계자녀는 외재화와 우울증 수치가 낮았고 사회적 책임감, 사회성, 자율감, 자기가치감은 높았다는 보고(Anderson & Green, 1999)와 비행의 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앞으로 계부가족, 계모가족, 복합재혼가족 등 재혼가정의 유형에 따른 가족관계와 역동, 스트레스 등에 대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은 재혼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사이버상담글을 올린 것을 분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사실 자체를 노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대면상담신청이 저조하고 설문자료나 심층면접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드러낸 자료들을 분석

함으로써 보다 청소년 자신의 경험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다. 게시판상담은 내담자들이 현재 겪는 어려움과 내적인 생각과 느낌을 자기 보고식으로 써내려가기 때문에 보다 내부경험에 집중한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내담자가 힘든 그 순간에 바로 글을 올리는 것이므로 내담자의 문제와 특성, 대처 등이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Adams(1998)에 따르면 분노와 슬픔 같은 깊은 내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되며 심리적 외상이나 삶의 여러 감정 주기에 대한 이해, 관계의 치유 등과 같은 치료적 효용성이 있다. Pennebaker는 유태인학살 생존자 연구(1984)나,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글쓰기를 적용한 집단의 효과(1983)를 보고하면서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는 정화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게시판상담은 글쓰는 사람이 자신의 내적인 경험, 반응, 인식에 집중하고 이를 표현하므로 면접상담에서 얻기 어려운 생생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재혼가족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개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게시판상담이라는 점은 의의인 동시에 한계점이 되었다. 즉, 청소년들이 제시한 상담내용을 분석하다보니 주어진 자료 안에서의 분석결과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게시판사례 중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제외하고 충실하게 상황을 묘사하고 맥락이 잘 드러난 사례들로 분석대상을 삼았지만 게시판상담내용이라는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분석하다보니 더 깊은 맥락을 파악하고 불분명한 기술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할 기회를 갖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내담자가 미처 보고하지 않은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게시판 사례 분석에서도 내담자들이 문제상황에서 올린 글들이므로 재혼가정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되었다. 재혼으로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다거나 친부모가 부드러워졌다, 용돈이 많



아졌다 등 긍정적인 측면을 일부 보고한 연구(임춘희, 2006)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측면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앞으로 성공적인 재혼가정을 유지한 사람들의 특성 및 요인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사례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한계를 가진다. 애초 청소년들이 재혼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례에 접근했을 때에는 남녀 사례들이 모두 수집이 되었지만 자기보고식 글쓰기라는 게시판상담의 특성상 남자들보다 여자청소년의 글이 월등히 많았으며 남자 청소년들의 글은 상황이나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는 글들이 많아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집과정에서 얻어진 남자청소년들의 글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남자청소년들은 주거불안정이나 기본적 돌봄부재와 같은 범주에서는 여자청소년에 비해 큰 문제를 보이지 않았으며 재혼가족체계의 구조적 어려움, 가족내 지위혼란 등에 대한 글이나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에 대한 보고들이 더 많았다. 수집과정에서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남자청소년들은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돌봄은 제공되나 호칭이나 가족에서의 서열, 친부모에 대한 연민 등이 더 고민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자청소년들은 기본적인 돌봄, 주거 불안정과 같은 문제, 집밖으로 내몰리는 심리적 경험 보고, 가족내에서 인정 받지 못하고 동생을 돌보는 역할이나 가사에 많이 동원되는 등의 상황을 보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은 한국 사회에서 재혼가정에서 여자청소년이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녀 경험과 인식차이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재혼가정에서 여자청소년들의 삶이 어떠한지 어려움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본 연구를 토대로 남녀 공통의 경험과 성차에 따른 경험차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심층질문을 가지고 인터

뷰를 진행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흥미로운 결과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친족들은 재혼 가족의 지지집단이 되기도 하고 혹은 지나친 간섭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 본 연구과정에서 일부 드러났다. 재혼하면서 친정부모와 의절한 경우나 계자녀 양육을 지나치게 간섭받거나 시택에서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 경우 재혼부모에 대한 청소년자녀의 연민과 양가감정이 발견되었다. 한국적 상황에서 재혼가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잘 기능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찾는 작업도 재혼가정 연구에서 의미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추후 재혼가정에 대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심화된 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김영신 (2008). **재혼가족의 청소년이 지각한 친부모와의 축진적 의사소통이 새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나 (2009). **한국 재혼 가족 자녀들이 겪고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순 (2005). **재혼가족의 역할긴장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효신 (2004). **재혼가족 내 모의 갈등과 적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순 (2007).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14(4), 65-86
- 류현수, 이정숙, 김주아 (2007). **가족관계와 복지**. 서울: 동문사. pp. 351
- 손병덕 (2005). 재혼가정, 일반가정 아동의 개인·양육 특성들이 아동의 행동 및 정서적 발달에

- 미치는 영향연구. **아동권리연구**, 9(1), 49-71.
- 오혜영, 지승희, 허지은 (2010). 청소년내담자와 상담자의 채팅상담 경험에 대한 인식. **상담학연구**, 11(4), 1433~1450
- 윤주애 (2002). **재혼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춘 (1991). 전화상담의 기법과 과정. **신학과 세계**, 205-231.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세계
- 이길자 (2007). **청소년들의 가족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 중학생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명 (2004). **사이버 직업상담에서의 내담자 정보 특성 및 상담자 언어반응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2009). 재혼연구 동향 분석: 1996년~2007년 발간된 국내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73-195.
- 임은미, 김지은 (1999). 청소년 사이버상담의 발전 모형. **청소년상담연구**, 75, 한국청소년상담원.
- 임춘희 (1997). **재혼가족 내 계모의 적응과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춘희 (2006). 재혼가정 청소년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관계 인식과 교육 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443-760.
- 정기영 (2010). **재혼여성들의 모성경험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http://kosis.kr/index/index.jsp>
- Adams, Kathleen. (2005). *The Power of Writing*, <http://journaltherapy.com> (last updated 2005).
- Anderson, E. R., & Green, S. M. (1999). "Children of stepparents and blended families". In W. K. Silverman and T.H. Ollenback(Eds.), *Developmental issues in the clinical treatment of children*.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Bay, J. H. (1999). From marriage to remarriage and beyond: Findings from the developmental issues in stepfamily research project. In E.M. Hetherington(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253-272).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herin, A., (1978). Remarriage as an incomplete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634-650.
- Crosbie-Burnett, M. (1984). The centrality of the step relationship: A Challenge to family theory and practice. *Family Relations*, 33, 459-464.
- Day, R. D. (1992). The transition to first intercourse among racially and culturally diverse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49-762.
- Fine, M & Kurdekk, L. (1992).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stepfather and stepmoth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25-736.
- Ganong, L. H., & Coleman, M. (1988). Do mutual children cement bonds in step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87-698.
- Hetherinton, E. (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o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10), 39-56.
- Hill, C. E. (2012). Introduction to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In C. E. Hill (Ed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pp. 3-2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C. E., Knox, X.,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2005).

-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96-205.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s, 25*(4), 517-572.
- Hoffman, J. P. & Johnson, R. A. (1998). A national portrait of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633-645.
- Pennebaker, J. W., & Newton, D. (1983). Observation of a unique event: Psychological impact of Mt. St. Helens. In H. Reis (Ed.), *Naturalistic Approaches to Studying Social Interaction* (pp. 93-109). San Francisco: Jossey-Bass.
- Pennebaker, J. W., & O'Heeron, R. C. (1984). Confiding in others and illness rates among spouses of suicide and accidental dea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473-476.
- Russell, A. & Searcy, E. (1997). The contribution of effective reactions and relations and relationships qualities to adolescents' reported responses to parents.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14*, 539-548.
- Sager, C. J., Brown, H. S., Engel, T., & Walker, E. (1983). *Treating the remarried family*. New York: Erlbaum/Mazel.
- Sproull, L., & Kiesler, S. (1986). Reducing social context cues: Electronic mail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nagement Science, 32*(11), 1493-1512.
- Steven F. C. (1991). Attachment and adolescent adjustment to parental remarrige. *Family Relations, 40*, 232-237.
- Visher, E. B. & Visher, J. S. (1996). *Therapy with Stepfamilies*. New York: Erlbaum/Mazel.
- Wllerstein, J. S., & Kelly, J. B. (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ctually cope with divorce*. NewYork: Basic Books.
- Ganong, L. H., & Coleman, M. (1988). Do mutual children cement bonds in step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87-698.
- 원 고 접 수 일 : 2012. 03. 31.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5. 24.  
게 재 결 정 일 : 2012. 06. 04.

## Perceived Difficulties by the Girls in Remarried Families

Jee, Seung Hee      Oh, Hea Young      Lee, Hyun Suk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olescents in remarried families, 18 cases of cyber counseling were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The results were 7 domains and 26 categories. The 7 domains were the frequently mentioned problems, the perception of the parents' re-marriage process, the perceptions of the step parents and the biological parents, the experiences of psychological conflicts and the related emotions, and the coping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to prevent and intervene the difficulties of the adolescents and their biological parents as well as step parents in remarried families.

*Key word: remarried family adolescents, qualitative research, CQR, cyber counseling*